

북한 후설모음의 융합(merger) 현상*

The Merger of Back Vowels in North Korean

강 순 경**

(Kahng, Soon-kyong)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coustically analyze the merger of back vowels in North Korean dialects which I believe, are here investigated for the first time since 1945. North Korean back vowels are distinctive from South Korean back vowels because they merge mainly on the back vowel space, while front vowels merge mainly in Seoul standard language and other South Korean dialects. In this paper the future of the vowel systems caused by the merger of the vowels in Korean dialects will also be investigated. North Korean dialects examined include dialects of the Pyungan, the Hamkyung, and the Hwanghae Provinces. North Korean back vowels are distinctive from South Korean back vowels because they merge mainly on the back vowel space, while front vowels merge mainly in Seoul standard language and other South Korean dialects.

Keywords : merger, back vowels, acoustic analysis

1. 서론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50여 년간을 남북한이 단절됨으로써 이북 방언에 대한 연구는 큰 제약을 받아 왔다. 그간의 몇몇 학자에 의하여 연구가 있어 오기는 하였으나, 남북 분단으로 언어 연구에 기본이 되는 북한 말에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불가능하여서 6. 25 때 이북에서 피난 온 실향민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현지의 언어가 아니라는 취약점이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는 이북으로부터 탈출하여 오는 귀순자들이 꾸준히 있어 와서, 당국의 특별 보호 하에 있는 이들의 발음을 직접 녹음,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은 이북 방언 연구를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필자가 처음 시도한 일로서 서울 표준말의 모음체계와 북한의 모음 체계를 실험 음성학적 방법으로 연구한 것 중에서 특히 북한의 후설 모음의 융합 움직임이 서울 전설 모음의 상승 움직임과는

* 이 논문은 1997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상이한 특징으로 발견되어서 이들 후설 모음의 융합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지칭하는 북한의 모음이란 북한에서 문화어라고 불리는 평양 방언과 함경 방언, 그리고 황해 방언을 지칭한다.

필자가 지칭하는 평양 방언이란 이북의 평안남북도 지방에서 쓰이는 종래의 평안 방언에 모태를 두고 있으나, 해방 이후 김일성에 의하여 그들의 표준어인 문화어라고 불려지면서 인위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육성된 언어라는 뜻에서 필자는 해방 이전의 평안 방언과는 구별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의 함경 방언 지역이란 종래 육진 방언이라고 일컬어졌던 함북 두만강 지역과 현재 북한의 지도상에 나타나는 함경 남북도와 새로 신설된 양강도와 자강도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쓰이는 방언을 지칭한다.

황해도 방언이란 현재 북한의 황해 남북도를 포함하는 지역에서 쓰이는 말을 의미하는데 종래의 학자들 간에는 전이 방언 지역이라고 분류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는 해방 전에는 경기도에 속하였던 개성 직할시와 개풍군, 장풍군에서 쓰이는 말도 현재 이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모두 황해 방언으로 분류한다.

2. 실험

2.1 피실험자

이 연구를 위하여, 최근 1, 2년간에 북한의 평안도와 함경도 그리고 황해도로부터 귀순하여 온 남녀 도합 17명을 선정하여 녹음하였으며, 이들의 나이는 20세부터 50세까지의 남녀였다. 서울 표준말을 위해서는 서울 태생으로 부모도 가급적 서울 사람(혹은 경기도)인 20대의 젊은이들을 택하였다. 피실험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평 양 화 자 (1994년도)

화자 PA : 안명진(26세). 평양 출생. 평양에서 김정일 군사 대학 졸업.

남한에 망명한지 1년됨.

화자 PB : 박철진(29세). 평양 출생. 소련 레닌그라드 대학 재학 중 망명.

중앙 대학교 재학생.

화자 PC : 한성호(26세). 평양 출생. 모스크바 국립 종합대학 어문학부 5년 졸업.

한양 대학교 재학생.

화자 PD : 홍금주(28세). 평양 출생. 평양 기계 대학 졸업. 중국 유학.

화자 PF : 최호영(30세). 평양 출생. 평양 상업 대학 졸업.

함 경 도 화 자 (1996년도)

화자 HA : 최동철(30세). 함경북도 은성군 은성읍 출생.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

1995년 12월 귀순

화자 HB : 김정용(27세). 함경북도 길주군 주남구 출생. 함경도에서 고등학교 졸업.

1996년 1월 귀순

화자 HC : 홍진희(28세). 함경남도 함흥시 성천구역 출생. 함흥시에서 고등학교 졸업.

1996년 1월 귀순

화자 HE : 이옥금(48세). 함경남도 갑산군 회진면 관장리 출생. 고등학교 졸업.
1994년 4월 귀순

화자 HF : 이순옥(50세). 함경북도 청진시 해방동 출생.
함경북도 청진시 경제 전문학교 졸업. 1995년 12월 귀순

화자 HG : 허광일(43세). 함경북도 김책시 쌍암동 출생. 청진 선박 공업 대학 졸업.
1993년 9월 귀순

황해도 화자 (1997년도)

화자 HWA: 최승찬 (32세). 개성 출생. 고등중학교졸업. 군공산대학 졸업.
1996년 11월 귀순.

화자 HWB: 김광일 (41세). 황해북도 사리원 출생.
농업대학졸업. 황해북도 도농촌 경리 위원회 지도자.
러시아 하바로스크에 2년간 간부로 근무. 1995년 9월 귀순.

화자 HWC: 안영길 (42세). 황해남도 웅진군 출생.
고등중학교졸업. 군관학교(2년) 졸업. 1995년 10월 귀순.

화자 HWD: 김장호 (36세). 황해북도 평산군 출생. 농업 전문대졸업.
86년 탈출 우즈베크에 8년 거주. 94년 8월 귀순.

화자 HWE: 이상운 (36세). 황해북도 은파군 출생. 고등중학교 졸업.
89년 - 93년까지 소련 입업 대표부 운전사 근무. 1994년 8월 귀순.

화자 HWF: 신명철(39세). 황해남도 청단군 출생. 고등중학교 졸업.
황해남도 청단군 체신소 근무. 1995년 11월 귀순.

서울 화자 (1994년-1995년도)

화자 SA : 김윤형(26세). 서울 태생. 홍익 대학교 재학생

화자 SB : 오종균(29세). 서울 태생. 홍익 대학교 재학생

화자 SC : 이정용(24세). 서울 태생. 홍익 대학교 재학생

화자 SD : 김재원(25세). 서울 태생. 홍익 대학교 재학생

화자 SE : 김진태(24세). 서울 태생. 홍익 대학교 재학생

화자 SF : 윤영재(21세). 서울 태생. 홍익 대학교 재학생

2.2 실험 방법

실험 방법은 연구의 균형을 위하여 세 방언의 실험에 되도록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 문장을 위하여 남북한에서 각각 그 존재를 인정하는 8개의 단순 모음을 채택하여서 단순 모음 8개를 고립형으로, 그리고 8개의 단순 모음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문장형으로 각각 녹음실에서 읽도록 하였다. 고립형으로 읽도록 한 것은 nonsense words를 읽는 것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였고 단어를 문장 속에서 읽도록 한 것은 평상시 자연스러운 대화체를 유도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단어들은 “나는 _____(이)라고 말했지”라는 문장 속에서 읽도록 하였다.

8개의 단순 모음이 포함된 16개 문장의 순서를 뒤섞은 것(randomized)을 다섯 번씩 반복하여 녹음실에서 읽도록 하였는데 서울과 평양은 각각 총 520 문장을, 함경도와 황해도

방언을 위해서는 각각 560개의 문장을 CSL(Computerized Speech Lab.)에서 분석하여서 제 1포먼트(F₁)와 제 2포먼트(F₂) 값을 얻었으며 이것을 다시 Macintosh의 Plot formant를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Plot formant는 Ladefoged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포먼트 F₁과 F₂ 값의 표준편차까지 계산하여 모음 영역을 표시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고립 모음>

이 에 애 으 우 아 어 오
기 게 개 그 구 가 거 고

<문장 속 단어>

“나는 _____(이)라고 말했지.”

표 1. 실험자료로 사용된 고립 모음과 단어

모 음	ㅇ	ㄱ
ㅣ (i)	이불	기분
ㅔ (e)	에라(모르겠다)	게임(놀이)
ㅐ (ɛ)	애기	개혁
ㅏ (a)	아이	가방
ㅑ (ʌ)	어뢰	거미
ㅓ (o)	오번	곡식
ㅜ (u)	우수	구별
ㅡ (i)	응시	금지

모음은 앞뒤에 오는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F₁과 F₂의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모음의 음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음으로만 시작되는 어휘를 고르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우선 고립 모음형태와 문장 속 단어형태가 모두 모음으로만 시작되는 어휘들을 선택하여 실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모음으로만 시작되는 어휘만을 골라서 실험할 때에는 Plot formant상에 나타나는 모음 조음점이 너무 한 곳에 몰려 있어서 자연스러운 모음 영역을 측정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모든 자음 다음에 오는 모음들의 어휘를 실험하여 측정하려 한다면 모음 앞에 오는 자음의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음 영역 측정에 혼란을 가져오기 쉽다. 이 실험에서는 모음의 고른 음가를 얻기 위하여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휘와 자음 가운데서 coarticulation이 심하여 비교적 모음의 음가에 영향을 덜 미치는 후설 자음인 velar consonant ‘ㄱ’ 다음에 오는 모음을 선택하여 함께 실험하도록 하였다.

3. 실험 결과

종래의 조음 음성학적인 혹은 음운론적인 연구 방법에서는 밝혀질 수 없었던 현상이 CSL을 이용한 실험 음성학적인 분석 결과 몇 가지 새로운 음운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

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발견은 북한 후설 모음의 융합 현상이며 남한 지역의 어느 방언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큰 특징의 하나이다. (물론 함경방언과 친연성이 주장되는 경상 방언에서 모음 /ɨ/와 /ɯ/가 융합되는 현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현상은 이북방언에서와 같이 후설모음 여러개가 서로 융합하는 현상과는 다르다.) 서울 표준말의 모음체계와 북한 후설 모음의 융합 현상을 방언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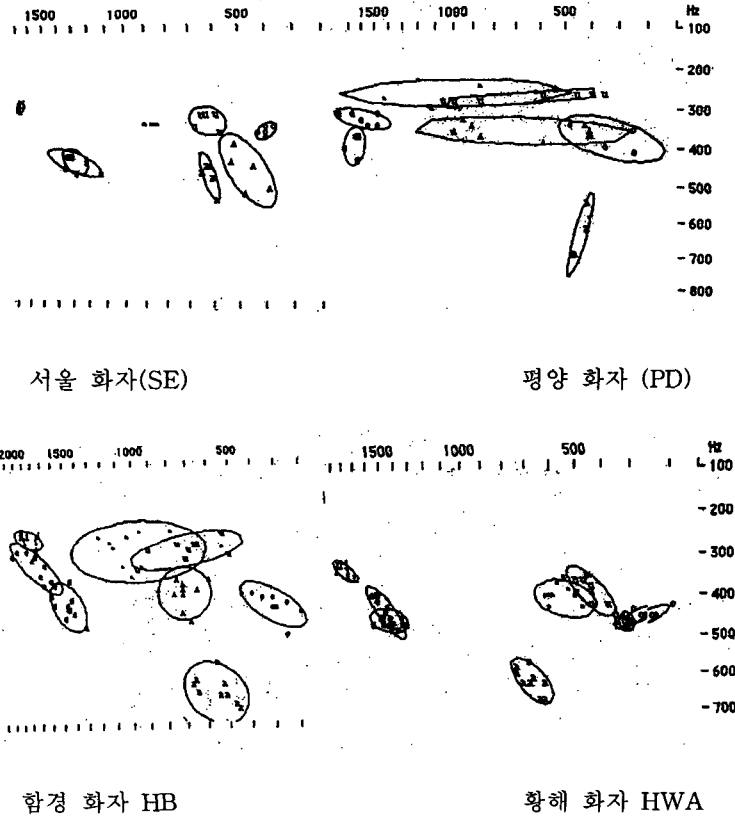


그림 1. 서울과 북한 3지역의 후설모음 분포도

그림 1에서 서울 표준말 화자의 모음 분포도를 보면 전설모음에서는 모음 /ɨ/와 /ɯ/가 융합하고 있으나, 후설모음에서는 /ɯ/, /ɤ/, /ɨ/, /ɨ/, /ɨ/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에 반해서 평양 화자에 있어서는 모음 /ɯ/는 모음 /ɤ/로, 모음 /ɨ/는 모음 /ɨ/로 융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함경 화자의 후설모음 분포도를 보면 모음 /ɨ/와 /ɯ/, 그리고 모음 /ɤ/가 융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모음 /ɨ/만은 확고한 모음 영역을 지키면서 어떤 모음과도 융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황해 방언 화자의 후설 모음 분포도를 보면 모음 /ɯ/와 /ɤ/가, 그리고 모음 /ɨ/와 /ɨ/가 융합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이 현상은 평안방언의 융합현상과 같은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의 서울 표준말과 북한의 세 방언의 후설 모음 분포도에서 적어도 3가지의 중요한 음운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서울 표준말과 북한의 세 방언은 후설모음의 움직임으로 큰 차이가 나며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서울 표준말에서는 전설모음에서 /h/가 /k/로 융합되는 현상을 보이기는 해도, 후설모음에서만은 모음간의 영역이 확고하여서 결코 융합하지 않는데 반해서, 이북의 세 방언에서 후설모음들이 서로 융합하는 것으로 구별이 되는 점이다.

두 번째로, 북한 방언들의 후설모음들이 융합 현상을 보이는데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네 개의 후설모음 /-/와 /ɯ/, 그리고 모음 /ɨ/와 /ɯ/가 융합하는 경우와, 또 하나는 세 개의 후설모음 /ɨ/와 /-/ 그리고 /ɯ/가 융합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네 개의 후설모음이 융합하는 경우는 평양 방언과 황해 방언의 경우이고, 후자의 세 개의 후설 모음이 융합하는 경우는 함경방언이다. 또한 융합하는 방향도 전자는 모음 공간의 가장자리로(outward) 움직이는 것이고, 후자는 위쪽으로(upward) 융합한 다음 모음 공간의 가장자리로(outward) 향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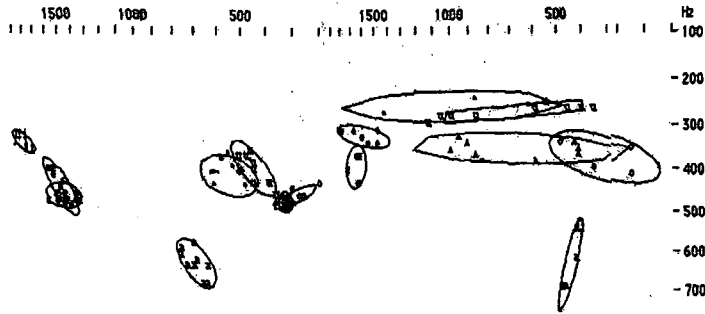
세 번째로, 본 실험에서 분석한 결과는 평양방언과 황해 방언은 네 개의 후설모음이 융합하는 점 등 모음의 체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다. 해방 이전이나 그 이후 남한에서 행하여진 김영배(1980, 1986) 등의 연구에 의하면 황해방언은 평안도와 경기도를 잇는 전이방언권에 속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승녕(1967)은 사리원 이북은 평안 방언권에, 그 이남은 경기도 방언권에 속한다는 주장이 우세하여 왔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해방 후 50여 년의 남북 분단기간에 황해방언에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하여 준다.

넷째로, 북한 방언들의 모음 융합 현상의 결과로 미래의 모음의 움직임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북방언은 물론 우리 나라 전 방언의 모음 체계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1 황해 방언의 존재

필자는 황해 방언의 모음 체계를 연구한 바가 있는데, 그 연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실험을 위하여 황해도 출신으로 자신들이 황해도 방언을 말한다라고 주장하는 귀순자 6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발음을 실험 분석한 결과, 그들 중 4명이 평양 방언과 같은 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2명은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함경방언의 발음을 한 두명의 성장과정을 추적하여 본 결과, 그들은 황해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언어 형성기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후 10여 년의 군복무기간 동안 함경도 지역에서 보냈기 때문에 언어 습관에 변화가 온 것으로 생각되어서 황해도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황해도 지역 출신 6명 중 4명의 발음은 모음 체계에 있어서는 모음 /-/가 /ɯ/로 융합하는 것이나, 모음 /ɨ/가 /ɯ/와 융합하는 것등이 모두 평안방언과 다른 점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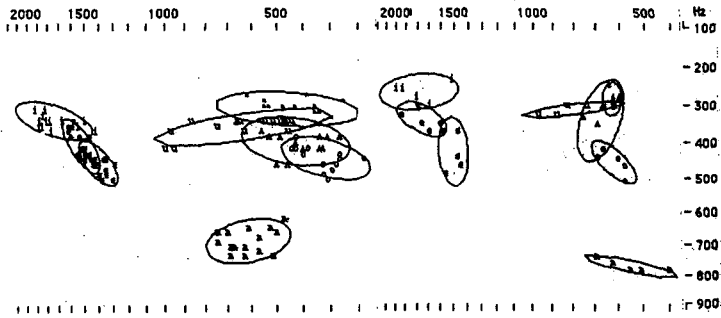


황해도 화자 HWA

평양화자 (PD)

그림 2. 황해 방언 화자와 평안 방언 화자의 모음 분포도

그림 2를 보면, 평양화자나 황해 방언 화자가 다 같이 후설 모음에서 모음 /ㅡ/가 모음 /ㅓ/로, 또 모음 /ㅓ/가 모음 /ㅗ/로 융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황해 화자나 평양 화자 모두가 “금”을 “굳”으로 “범”을 “봄”으로 발음하여서, 서울 화자들과 의사 소통시 종종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들은 “봄”과 “범”을 발음할 때 후설모음의 융합·현상 때문에 우리와 반대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서, dictation을 시켜보면 “봄”이라고 부르면 “범”으로 받아쓰고, “범”이라고 부르면 “봄”이라고 받아쓰는 경우가 많았다.



황해 화자 HWD

평양 화자 (PA)

그림 3. 황해 화자와 평양 화자의 모음 분포도

그림 3에서 황해 화자와 평양 화자의 후설모음을 언뜻 보면 네 개가 비슷한 모양으로 서로 얽힌 듯이 보이지만은 자세히 관찰하면 모음 /ㅡ/가 모음 /ㅓ/와, 모음 /ㅓ/가 모음 /ㅗ/와 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평양, 황해화자들이 대화체의 약간 방심한 발음을 하다보니 모음 /ㅓ/와 모음 /ㅡ/ 그리고 모음 /ㅓ/ 등의 경계등이 일부 겹쳐져 있을 뿐이지, 모음 /ㅡ/는 모음 /ㅓ/로, 모음 /ㅓ/는 모음 /ㅗ/로 융합되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또 한가지 특기 할 것은 그림 3에서는 그림 2에서와는 달리 모음 /ɪ/와 모음 /ɨ/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모음 /ɨ/보다 후설에 있어야 할 모음 /ɪ/가 /ɨ/보다 전설에 위치하고 있고, 전설에 있어야 할 모음 /ɨ/가 모음 /ɪ/보다 후설에 위치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음 /ɨ/와 모음 /ɪ/의 뒤바뀐 현상 역시 그림 3에서와 같이 황해 방언과 평양 방언에서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모음 /ɨ/와 /ɪ/의 뒤바뀐 현상은 과잉교정 현상(hypercorrection)으로 필자가 발견하여 다른 논문에서 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림 2와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북한 방언에서 황해 방언은 평양 방언과 구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해방 이후에 행해진 실험 연구에서 얻어진 중대한 발견으로, 종래에 학자간에 있었던 황해 방언이 전이 방언이라는 이론은 이제 크게 흔들려야 할 것 같다. 우연의 일치이기는 하나 실험 연구에 참가한 황해도 화자들의 출신 지역이 모두 사리원 이남(평산군, 은파군, 청단군, 개성직할시)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준다. 즉 이 지역들은 종래의 학자들의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중부 방언권에 속하기 때문에 경기 방언의 모음 체계를 가져야 한다. 특히 이들 중 화자 HWA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은 물론이고, 부모 모두가 개성 출신이고, 언어 형성기를 개성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 방언의 모음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그림 2. HWA 모음 분포도 참조), 종래에는 개성이 중부 방언권에 속해 있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안 북한의 언어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왔음을 말하여 준다.

다시 말해서, 중부 방언권에 속해 있던 황해 방언이 해방 이후 남북한의 단절로 그 전이 방언권의 성격을 탈피하여 사리원 이남 지역도 모두 평양 방언권으로(서북 방언권) 이전 소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전이 방언권의 성격을 띠기는 하였으나 하나의 방언권이 평양 방언권으로 이전 소속하게 된 데는 북한 당국의 사상 전파의 도구로 삼았던 문화어 보급 정책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으며, 또한 황해 방언이 강한 억양 등으로 특색이 있는 함경 방언과는 달리 경기말과 같은 동화가 쉬운 중성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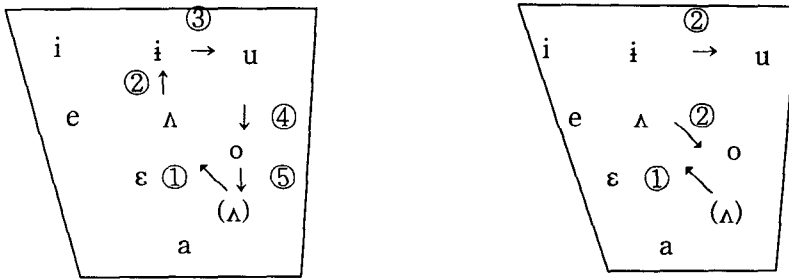
이북 귀순자들을 말로도 북한에서는 평안도와 황해도 말은 구별할 수가 없으며 다같이 문화어를 쓴다고 말하고 있다. 세부적인 분류는 가능하겠으나, 크게 보아 현재 북한에는 평양 방언과 함경 방언의 두 방언만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3.2 push chain과 drag chain

북한 세 방언의 후설모음의 융합현상은 André Martinet의 push chain 이론으로 가장 잘 설명이 된다. 그는 역사적으로 모음의 변화를 "push chain"과 "drag chain"으로 설명하였는데, 이 변화는 모음 공간에서 모음이 너무 밀집한 곳을 피하기 위하여 덜 밀집한 공간으로 밀고 나가거나 (push chain), 모음이 없는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모음을 끌어당기(drag chain)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는 모음간의 등거리(equidistance)와 변별력의 극대화(maximal differentiation)가 이루어지고 음운 체계의 균형과 단순화가 이루어진다. Martinet의 이론을 이북 방언의 후설모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방언에서 모음 /ɨ/의 위치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동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ɨ/ 모음은 다른 모음에 비하여 불안정하고 발음되는 음역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음성 변화 과정에서 /ɨ/ 모음 밑에 위치하였던 /ɨ/ 모음이 우연한 기회에 앞에 있는 덜 밀집된 공간으로 밀고 올라왔다고 가정할 수 있다(push chain). 이렇게 올라온 /ɨ/ 모음은 이북 방언의 경우 그 위치에 그대로 안주하게 된다.

/ɨ/ 모음은 다시 안쪽에 위치한 /ɨ-/ 모음과 인접하게 되는데, 함경방언의 경우 /ɨ/가 /ɨ-/쪽으로 상승하여 융합하게 된다. /ɨ/ 모음에 밀린 /ɨ-/는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설쪽으로 움직여 가던지 아니면 후설쪽으로 움직여 가야 하는데 함경방언의 경우 모음 /ɨ-/는 모음 /ɨ/가 있는 쪽으로 밀어 붙이게 된다. 모음 /ɨ-/에게 밀린 모음 /ɨ/는 변별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모음 /ɨ-/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고, 다시 모음 /ɨ/에 밀린 모음 /ɨ-/는 원래 /ɨ/가 있었던 빈 공간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어, push chain은 한바퀴 돌면서 모음의 위치는 조금씩 그 위치를 바꾸게 된다.



함경 방언

평양, 황해 방언

그림 4. 북한 방언의 push chain 현상

함경 방언에서 모음 /ɨ/가 /ɨ-/와 혼합되고 다시 모음 /ɨ/와 혼합되려는 과정은 모음 체계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모음은 구별하기 쉬운 모음들과 융합하여 모음의 변별력을 극대화시키고, 모음 체계의 균형과 단순함을 실현하는 결과가 된다.

평양 방언과 황해 방언에서도 마찬가지로 후설 모음 /ɨ/ 밑에 위치하였던 /ɨ/ 모음이 우연한 기회에 모음 사각도 안에 덜 밀집한 가운데 공간으로 밀고 올라와서(push chain) 안주하게 되었다가 다시 /ɨ/모음은 후설 모음 /ɨ-/쪽으로, /ɨ-/ 모음은 /ɨ/ 모음을 밀어 부쳐서(push chain) 융합한다. 평양, 황해 모음 체계는 이 변화로 모음의 수가 줄어들어 청취력의 극대화를 가져오며 서서히 다섯 모음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유표가 무표로의 이동

위 3.2에서 Martinet의 push chain, drag chain으로 설명한 북한 후설 모음의 융합현상은 Chomsky적인 유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호대립을 나타내는 언어학적 자질 중 보다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자질을 가진 것을 무표(unmarked)라고 하며, 보다 복잡하거나 특수하며 덜 일반적인 자질을 가진 것을 유표(marked)라고 한다.

그러나 평양(황해) 화자와 함경 화자들의 발음에서는 공통적으로 모음 /ㅡ/가 /ㅓ/쪽으로 향해 이동 융합하는 현상을 보임으로, 두 지역 사람들 모두 “그들”은 “구들”로, “그래 그래”는 “구래 구래”로 발음한다.

3.4 모음 /ㅓ/ 음가

이미 3.2, 3.3에서 평양과 황해도 출신 화자들이 “범”을 “봄”처럼 발음하여 대화상 오해를 빚는 일이 많은 이유는 바로 북한 후설 모음의 융합 현상 때문인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이북 화자들이 “봄”이라고 발음할 때는 “범”처럼 들리고, “오 번”이라고 말할 때는 “어 번”으로 “목욕”은 “머역”으로, “콩알”을 “경알”로 발음한다. 모음 /ㅓ/를 모음 /ㅓ/처럼 발음하고 다시 모음 /ㅓ/를 모음 /ㅓ/처럼 발음하는 /ㅓ/ ⇄ /ㅡ/ 현상을 필자는 한 때는 과잉 교정(hypercorrection) 현상으로 잘못 판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3.2에서의 Martinet의 push chain 현상을 함께 고찰하여 본다면 북한(평양, 황해, 함경) 방언에서 왜 그들의 모음 /ㅓ/가 서울말의 /ㅓ/처럼 들리는지 그 이유가 설명이 된다.

즉 push chain에서 모음 /ㅡ/에 밀린 모음 /ㅓ/가 밀의 공간으로 밀려 내려오면, 다시 /ㅓ/에 밀린 모음 /ㅓ/는 필연적으로 아래에 있는 빈 공간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그 공간이 모음 융합 움직임이 있기 전의 원래의 모음 /ㅓ/가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ㅓ/는 음가상으로 /ㅓ/로 발음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의 모음 /ㅓ/는 철자는 “ㅓ”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ㅓ/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ㅓ/와 /ㅓ/의 발음에서 혼동이 생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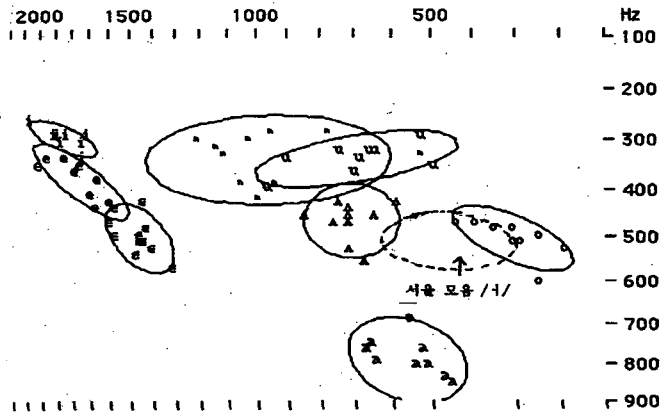


그림 6. 서울말의 /ㅓ/의 위치와 북한 방언의 /ㅓ/의 위치

Martinet의 push chain 이론은 북한 방언의 모음 체계를 설명하는데 더 없이 좋은 이론이며 북한 방언의 /ㅓ/의 음가가 왜 남한 모음의 /ㅓ/의 음가와 판이하게 달랐는가의 의문을 풀어준다.

4. 결 론

지금까지 고찰한 북한 후설 모음의 융합 현상은 모음 체계의 단순화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서울 표준어에서는 단순 모음 체계를 8 모음으로 잡고 있으나 실제로 60대 이하의 서울 사람들의 발음을 실험해보면 그들은 “개”와 “게”, “배”와 “베”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의 평양, 황해, 함경도 출신의 나이가 젊은 화자들의 발음에서도 모음 /ɨ/와 모음 /ɨ/는 구별되지 않고 있으며 모음 /ɨ/는 모음/ɨ/로 상승 융합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강순경: 1997).

평양 방언(황해 방언)의 모음 체계는 원래 8개의 모음이었던 것이 모음간의 융합(/ɨ/ → /ɨ/와 /ɨ/ → /ɨ/)과 상승 작용(/ɨ/ → /ɨ/)으로 5모음 체계가 되고 있으며, 함경 방언에서도 모음 /ɨ/ → /ɨ/와 모음 /ɨ/ → /ɨ/의 융합은 6개의 모음 체계로 움직여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은 6 모음 체계에 남은 /ɨ/ 모음은 함경 방언 모음 체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표이며, 음운 변화 과정 속에서 이것은 무표인 /ɨ/ 모음쪽으로 필연적으로 중화되어 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음운 변별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체계의 단순성을 위해서도 6 모음 체계보다는 5 모음 체계가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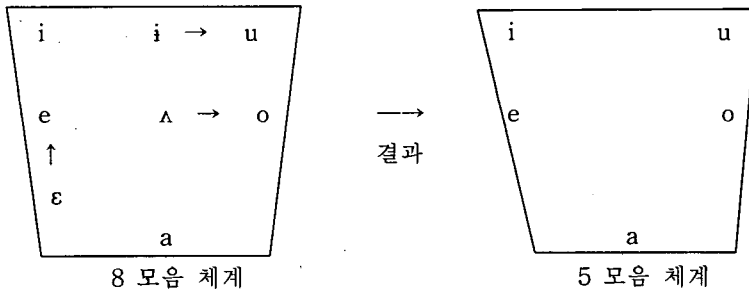


그림 7. 평양(황해)방언의 모음 체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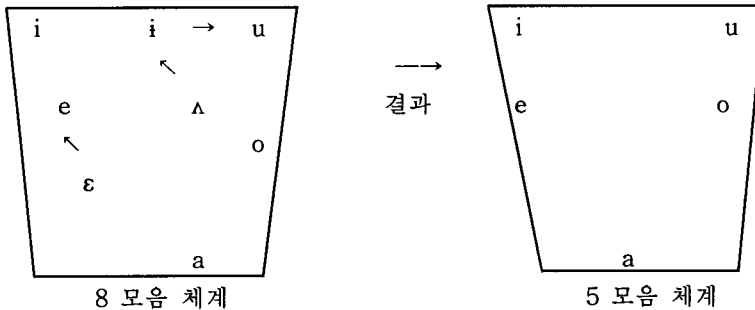


그림 8.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 변화

서울 표준말의 모음 체계도 8개였던 것이 상승 작용(/ɨ/ → /ɨ/)으로 7모음 체계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모음들 간의 상승화 작용(김진우 1971: 87~94와 전상범 1976: 66~67)으로 5개의 모음 체계로 갈 것으로 예견된다.

5모음체계는 모음 사각도 가장자리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모음간의 등거리가 유지되며 특히 후설모음은 원순모음으로 전설모음은 비원순모음으로 최대한의 구분을 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7 모음 체계보다 청취력의 극대화를 가져다 준다.

모음이 그 기본 공간 가장자리에 서로 멀리 분포될수록 좋다고 한다면 3모음 체계가 5모음 체계보다 모음수가 적어서 구별하기가 더 쉽고 간편함으로 당연히 제일 이상적인 체계여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Hockett(1958)은 모음의 비율은 그 언어 전체 분절 음소의 수와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즉 분절음소의 수가 적은 언어에서는 모음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크고, 반대로 분절음소의 수가 많은 언어에서는 모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였다. 3모음 체계의 언어는 5모음 체계의 언어보다는 간결할 같으나 실제로는 모음의 수가 적은 대신 자음의 수가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말소리의 변별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언어에서는 자음의 수로도 변별력이 충분치 못한 때에는 음절의 수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성조(tone)가 추가되어 말소리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성이 더 하여진다.

Hockett의 통계에 의하면 8개의 모음이 있는 Finish에서는 13개의 자음이 있으며, 5개의 모음이 있는 Hawaiian에서는 8개의 자음이 있다고 한다. 또한 3개의 모음이 있는 Bella Coola어에서는 모음의 수가 적기 때문에 33개의 자음이 있다는 조사 자료는 모음의 수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 너무 적을 때에는 자음이나 혹은 초분절 음소가 추가되어야 변별력이 가능해짐으로 오히려 간결성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모음 체계의 청취력의 극대화와 단순성을 위해서는 어느 한계가 정해져야 하는데 바로 이 조건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5모음체계라고 생각된다. 대개 이 5모음 체계에는 8-13개의 자음 수로서 다른 복잡한 초분절음 음소의 첨가 없이 변별력이 가능해짐으로 가장 이상적인 간결성과 청취력의 극대화를 가져다준다고 할 수 있다.

Ian Maddieson(1984)에 의하면 그가 표본으로 모은 317개 언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모음체계는 5모음체계로 전체의 21.5 %를 차지하며 68개 언어라고 한다.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체계는 6모음 체계로서 43개 언어로 13.6 %를 차지하며, 세 번째로는 7모음체계로 34개 언어로서 10.7 %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위의 통계는 결국 5모음체계가 6~7개를 가진 모음체계 보다 모음간의 구분을 더 쉽게 해주기 때문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우리 나라의 6 내지 7개의 모음을 가지고 있는 방언들은 서서히 모음의 상승(김진우 1971, 전상범 1976) 및 융합현상을 통하여 5모음 체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모음 체계의 단순화와 청취력의 극대화의 방향이며 방언들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믿어진다. 이러한 예견은 북한의 모음체계를 실험 연구하여 얻어진 결론이나 더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순경. 1995. "표준말과 문화어의 장단 모음 분석." 동서문화연구, 제3집, 홍익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 _____. 1996. "남북한의 모음분석." 어학연구, 제 32권 제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_____. 1997. "함경 방언의 모음 체계." 어학연구, 제 33권 제1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곽충구. 1994. "북한 방언에 대한 연구 성과와 과제." 인문과학, 제10집,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_____. 1992. "함경도 방언 연구의 전개 과정과 그 전망." 김영배 편저, 남북한의 방언연구, 서울: 경운 출판사.
- _____. 1992. "황해도 방언의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김영배 편저, 남북한의 방언연구, 서울: 경운 출판사.
- 김무식. 1985. "경상도 방언 /ㄱ/와 /-/ 모음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문학과 어학연구, 33, 서울: 문학과 어학연구회.
- 김병제. 1980. 방언사전,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영배. 1980. "황해도지역 방언연구 -음운체계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논문집 (동국대 11), 평안 방언연구 (1984, 동국대 출판부)에 재수록.
- _____. 1986. "북한 방언의 연구에 대하여", 국어생활, 5, 국어연구소.
- 김영환. 1982. 조선어 방언학,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출판사.
- 김진우. 1971. "국어음운론에 있어서의 공모성." 어문연구, 7.
- 김태균. 1983. "함북방언 조사연구." 후보 전병두박사 회갑기념논문집.
- 이기동. 1987. "함경남도 북청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이승녕. 1967. "한국방언사." 한국문화사대계 언어문학사편, 서울: 고대문화연구소.
- 이영택 편집. 1991. 최신북한지도, 서울: 우진지도문화사
- 전상범. 1976. "변이의 음운론적 해석." 언어와 언어학, 제4집, 서울: 한국의국어대학 언어연구소.
- 小創進平. 1927. "咸鏡南北道 方言." 朝鮮語, 2.
- Chomsky, N. & Halle, Morris.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Y: Harper & Row.
- Hockett, Charles F.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NY: The Macmillan Company.
- Maddieson, Ian. 1984. *Patterns of Sound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tinet, André. 1970. "Phonetics and Linguistic Evolution." Bertil Malmberg, ed. *Manual of Phonetics*, Amsterdam: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464-487.
- Kent, Ray D. & Read, Charles. 1992. *The Acoustic Analysis of Speech*, San Diego, California: Singular Publishing Group, INC.
- King, Robert 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New Jersey: Prentice-Hall.

접수일자 : '98. 11. 10
게재결정 : '99. 3. 11.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우: 121-791)
Tel: (02) 320-1750 (O), 780-7369 (H)
Fax: (02) 322-2294
e-mail: nkag@wow.hongik.ac.kr